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4월 19일(일) 제1585호



장애인챔버오케스트라 '사랑챔버'가 '미야기 러브소나타'에서 연주로 감동을 선물했다.

함께 걷는 세상, 더 넓고 따뜻합니다!

4월 18일과 19일 '장애인주일' 기념행사 풍성 특순, 인식 개선 캠페인, 교사 모집, 희망콘서트

4월 18일(토)과 19일(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세상은 더 넓고 더 따뜻하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날이다.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장애인주일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장애인주일 예배에서는 장애인사역본부 부서 및 찬양팀이 특순을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일 1부 꿈사랑부, 2부 강동 사랑부 카리

스합창단, 일요일 2부 온사랑합창단, 3부 사랑챔버오케스트라, 4부 사랑부가 특순한다. SNS청년부 예배에서는 예수사랑부가 무대를 장식한다. 양재온누리교회 일요일 2부에서는 사랑부, 3부에서는 예수사랑부가 특순을 선보인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 담긴 포스터 4

종을 교회 곳곳에 부착한다. 4월 21일(화)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엘리베이터와 남녀 화장실 등에 부착한다. 포스터 디자인은 최희민 형제(양재 사랑부)가 했다. 장애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부스도 운영한다. 4월 19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부스를 운영한다.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도 한창이다. 5월 9일(토)까지 사랑홀갤러리에서 장애인 청년 작가 5인(김수, 김재원, 박해신, 이지영, 최희민)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도 막 오른다. 4월 24일(금) 오전 11시 30분 온누리 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 교사도 모집한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홍보 부

스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사랑부 신입교사 교육도 한다. 토요일 5월 23일과 30일 오후 1시 사랑홀, 일요일 5월 24일과 31일 오후 1시 사랑홀에서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5월 19~21일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이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10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식사, 간식비 및 교재비 포함).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 1일 차에는 '정신'을 주제로 채규만 교수(한국 및 미국 임상 심리전문가), 김성진 진료부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강의한다. 2일 차에는 '정서'를 주제로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장석연 원장(그로웨이브 심리상담센터), 유현주 교수(Soh 심리영성센터 소장), 안해용 목사(목회자마음돌봄센터 센터장)가 강의한다. 3일 차에는 '통합'을 주제로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최용일 장로(정담경희한의원, 청담경희한방연구소 원장), 정주호 대표(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학부 겸임 교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532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19일과 22일

온누리교회와 굿월스토어가 함께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한다. 양재, 인천, 평택, 강동, 양지온누리교회는 4월 19일까지, 대전과 세종 22일까지, 부천은 상시 수거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에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품을 기증받아 재판매한다. 의류,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주방용품, 도서, 화장품 등을 기증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굿월스토어는 장애인이 일할 능력을 키워 자립하도록 돕고, 그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소매 유통 중심의 직업 재활 시설이다. 문의: 1533-0091

/ 남현영 기자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4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CGN이 기획한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30일(목)까지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가창 영상은 자유곡 1곡과 지정곡 1곡을 선정해서 불러야 하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와 찬양사역자 등 CCM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에서 지원서 양식과 지정곡 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5월 심사를 거쳐 예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7월부터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 1인을 선정한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TOP 7인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국내의 투어 콘서트, CGN 후속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5월 2~3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5월 2일(토) 오전 7시부터 3일(일) 오후 6시까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을 한다. 이 기간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성

도와 주차카드 발급 차량 중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가 있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확인한 다음 입차할 수 있다. 교회를 오가는 셔틀은 5월 3일(일)만 운영.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장 비슷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고,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도 끊임없는 시기와 경쟁 관계였습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이고 외삼촌 집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14년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많은 가족도 가졌지만, 더는 장인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압박 나무만 건너면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고민합니다. 에서와의 20년 만의 재회는 원하는 장면이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래서 형에게 미리 선물과 가족을 보내지만, 결국 그와 가족들, 남은 가족들 모두 압박 나무를 건너게 하고, 야곱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지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홀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킬까요? 첫째, 홀로 있게 하십니다(창 32:23-24).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애써 모았던 재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도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 나무에서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형 에서와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홀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 많은 권세, 많은 경험조차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 채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심으로 그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은 압박 나무에서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야곱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천사를 보내십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천사를 이겼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고 기록합니다(호 12:4). 야곱은 은혜와 은총을 받기 위해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 골절시켜서 똑바로 걸을 수도, 똑바로 설 수도 없는 고통을 줬습니다(창 32:25). 야곱이 그동안 원하는 것을 갖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욕망과 야망을 꺾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두는 시간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엉덩이뼈를 골절시키듯 우리의 고집과 세속적인 찌꺼기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옛 자아와 옛 습관, 옛 욕망을 치십니다.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둘째,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창 32:26-27).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 놓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야곱은 뼈가 골절되는 아픔과 고통,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은 이제 물러설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외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다고보다 진짜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자, 남을 등쳐먹는 자,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훔쳤던 지금까지

지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방법과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엡 4:22-24).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새 이름으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죄악과 교만, 옛 생활을 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브니엘의 소망으로 야곱과 함께하십니다

셋째, 브니엘의 소망으로 야곱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야곱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2:28).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심으로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의 아픔을 치료하고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의 ‘엘’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어야 될 인생이었지만,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씨름을 하며 환도뼈를 치시며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브니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심, 새로운 하루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환도뼈

를 치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환도뼈가 골절되어야 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브니엘의 아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창 32:31).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돼 서 있을 수 없었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고통이 너무 커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며 인생도, 삶도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이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프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떠날 때 ‘해가 떴다’

31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은 은혜를 입은 야곱이 떠날 때 ‘해가 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압박 나무에서 밤새 씨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 ‘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절망과 두려움의 밤이 끝나고, 야망과 욕망에 찌들었던 야곱을 붙잡고 있던 저주의 밤이 끝나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떠오르는 브니엘의 소망, 브니엘의 아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다리는 절뚝거려야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떠오르는 햇살처럼, 브니엘의 소망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속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브니엘의 아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좌절과 절망의 시간,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종교의 자유가 그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것일까?

누군가가 “종교의 자유는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핑계일 뿐이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람들은 종종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차별금지를 피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나머지 사회를 자기들의 규칙에 따라 살게 만들려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그것이 사실일까? 종교의 자유는 단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까?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부의 강요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깊이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 수 있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끼더라도, 그 신념을 따

르며 살아간다는 이유로 정부가 처벌할 수 없도록 약속한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종종 매우 격렬하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종교는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 우리의 깊은 종교적 신념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것이 그들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간의 번영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해 왔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등 종교인들은 성관계는 결혼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 가르치는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건강한 가정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도 유익하다고 본다. 많은 종교인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신앙인들이 재정적 기부, 입양, 의료 혁신, 빈곤층 돌봄과 같은 영역에서 앞장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유익하다. 종교의 자유가 더 큰 사회일수록 모든 사람의 신념에 대해 더 관용적이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8년 종교의 자유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중국, 이란,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였다(북한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들과 종교의 자유를 훨씬 더 존중하는 국가들을 비교해 보라. 미국, 한국,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도 문제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의 양심

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로운 사회이다. 건강한 국가의 특징은 어떤 의견 차이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념과 세계관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심지어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종교의 자유는 단지 “차별할 수 있는 면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유익하다. 종교의 자유가 더 큰 사회일수록 모든 사람의 신념에 대해 더 관용적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존엄

르네상스 휴머니즘: 근대적 개인과 성(性) 그리고 인권의 출현



이종우 장로
(성북공동체)

르네상스의 꿈은 근대적 개인, 즉 ‘나’의 재생(再生)으로 실현된다. 근대적 개인(individual)은 그 어원이 말해주듯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체다.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실체다. 근대적 개인은 하나님 중심의 거대한 우주적 질서(존재의 대사슬)와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의 전형성을 체현하는 중세의 개인을 전복한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근대적 개인은 최종 정당화(justification)의 몫을 차지한다. 스스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이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체적 자아가 출현한 것이다.

근대적 개인의 출현은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원천·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라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그리스·로마 고전 문헌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각자의 개인을 호명한다. 르네상스는 이성적이고 자족적인 주체를 불러오고,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신앙적 양심의 주체를 일깨운다. 르네상스가 인간에게 내재한 덕의 힘에서 구원의 희망을 확인한다면, 종교개혁은 인간의 타락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의 절대성을 고백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적 사유를 극복하고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적으로 각성한 개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르네상스는 하나님 중심의 존재론에서 인간

중심의 인식론으로 전회한다. 진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 이냐고 질문한다. ‘믿음과 연역’에서 ‘이성과 귀납’으로 진리 인식의 방법이 바뀌면서 진리와 지식의 위계적 역전이 일어난다. 목적적 진리가 지식을 보증하는 대신 수단적 지식이 인과율의 원리를 중심으로 진리를 구성한다. 그 결과, 타당성 구조가 사회적 합의로 변화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철저히 분리된다. 이는 데카르트식의 주체와 객체 이원론과 맞물려 근대적 주관주의를 강화한다. 따라서 의미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서 주객이 교섭하며 사실에 내재한 가치를 발견하는 재주술과 과정의 모색이 필요해진다.

르네상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예비한다. 성실한 노동과 부의 축적을 통해 구원의 징표를 얻으려는 금욕적 윤리는 자본주의의 맹아를 태동시킨다. 이는 주체의 시선으로 세계와 사물을 재편하는 르네상스 원근법에 투사된 소유적 욕망의 연장선이다. 소유는 단절과 소외를 낳는다. 소유적 시선을 거두고 참된 관계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타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시선이다.

르네상스는 과학혁명을 통해 과학적 유토피아를 구상한다. 이는 자연의 원인과 운동 법칙을 밝혀 자연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고 인간의 번영을 실현하는 실용적 기획이다. 자연에 대한 지식이 곧 권력이자 효용으로 자리 잡는다. 베이컨은 축적된 과학 기술로 인간을 질병과 빈곤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제안한다. 특히 생명공학과 첨단기술을 예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생명 연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근대적 상상력은 역사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인간 폐지’의 문을 연다. 자연 정복의 시도는 자연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중국에는 내면의 자연인 인간성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된 자연이 내포한 보편적 가치 기준의 회복이 필연적이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욕망을 해방한다. 이성이 주체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에 역설적으로 욕망과 육체적 감각을 공공연하게 담론화한다. 욕망의 재평가는 성 윤리의 변화와 함께 성적 개방을 무대의 전면에 배치한다. 성은 종족 보존과 출산이라는 목적론적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개인적 쾌락의 권리로 독립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동성애를 ‘자연법을 거스르는 죄’로 규정하던 전통이 도전받는다. 르네상스 시기,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성적 욕망은 엄격한 법적 금지와 광범위한 관행 사이에서 기묘하게 공존한다. 나아가 성은 예술과 미학의 주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성 윤리는 성 권리로 전환된다.

한편, 일군의 신앙적 인문주의자들은 남녀 상호보완적인 성 윤리를 이상사회의 근간으로 삼는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혼전 순결을 강제하며 성적 욕망을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해소하도록 규정한다. 남녀 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은 총체적인 유토피아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다. 밀턴 역시 <실낙원>에서 남녀 간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이상화하고, 부부 간의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결혼한 남녀의 사랑은 낙원을 유지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남녀 간의 조화로운 결속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의 전인적 이상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의 인권 담론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전례 없는 시대적 성찰에서 비롯된다. 존엄성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당위적 토대이다. 이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정립한다. 르네상스는 존재론적 전제로서의 존엄성과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윤리적인 성취에 방점을 찍는다. 그 근거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서 나타나듯,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능동적인 자기 창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삶과 생명, 심지어 성조차도 배타적으로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근대적 소유권을 정당화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독백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쥐게 된 근대적 주체의 실존적 고뇌를 극적으로 표상한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인문주의자들은 진정한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발원한다고 역설한다. 개인의 존엄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 개인을 자연의 통치자로 위임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호명하며 교제할 때 확립된다. 그리하여 진리가 인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때 그의 존엄성은 눈부시게 발현된다. 이 찬란한 존엄성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참된 인간의 궁극적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가장 온전한 인간상으로 완성된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일시: 매주 화 오후 7시~9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2층 콘서트홀
신청: 아이스콜
회비: 1만 원
문의: 02-3215-3281

‘장애’라는 북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장애인사역본부 부모와 교사들의 솔직담백한 고백

장애인사역본부 공동체 부모와 교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을 들었다. 누군가는 자녀가 처음 장애 진단을 받던 날 병원 계단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장애인 자녀가 그린 작품을 전시한 날의 기쁨을 고백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장애인과 함께 걷는 길에서 경험한 감동을 노래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려고 목적지에 맞게 짐을 챙겨 비행기를 탔는데, 착륙지는 이탈리아가 아닌 알래스카의 어느 공항이었다.”

장애인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의 당혹감을 표현한 이 문장이 낯선 비유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몸으로 겪어낸 이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고백이다. 오랜 시간 ‘장애’라는 칼바람이 부는 북극에서 사는 방법을 익혀온 이들의 솔직 담백한 고백이 마음을 울렸다.

원망도, 불평도 어려웠던 그 시간

자녀의 장애를 의연하게 받아들이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 이선아 성도(부천온누리교회)는 아들 윤후(부천 사랑부)의 장애 검사 결과지를 받던 20여 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또래보다 발달 속도 등이 범주를 벗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도, 막상 검사 결과지를 받아 들고는 병원 계단에서 통곡하고 말았다.

울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 7살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료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 희귀 난치 질환 진단과 수술, 뇌전증 대발작,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까지 더 큰 난관들이 찾아왔다. 그 모든 시간을 버티면서도 원망도, 불평도 편하게 뱉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말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지도 못하는 남편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게 보였고, 저는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죄가 되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봐 애써 머리를 흔들며 애꿎은 기도 시간만 늘렸습니다.”

이지영 자매(강동 사랑부)의 어머니 오금옥 성도(강동온누리교회)도 딸의 장애 진단 앞에 무너져 내렸다. 이지영 자매가 4살 될 무렵, “자폐증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이 세상 모든 신(神)을 원망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없다, 부처님도 없다’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모든 신을 꼬집어 와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아이의 장애가 나의 죄라 여기며 세상의 눈치, 가족의 눈치,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암흑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2025 사랑부 캠프’에서 장애인과 교사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혜신 자매(서빙고 예수사랑부)의 어머니 김명희 권사도, 김수 자매(서빙고 사랑부)의 어머니 김영화 성도도, 김재원 형제(온사랑합창단)의 어머니 박정애 성도도 다르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 진단 앞에 상한 마음을 감추고 끝까지 그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 울며불며 매달려 보면서 ‘장애’라는 북극의 추위를 견뎠다.

북극에도 봄은 온다

시간이 흘렀다. 살을 에는 칼바람만 부는 것 같았던 북극에도 따스한 봄이 드는 봄이 찾아왔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윤후 형제가 올해 스무 살이 됐다. 뇌전증 대발작은 여전히 찾아오고, 희귀 난치 질환은 평생 안고 가야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이선아 성도는 그 기쁨의 비결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다.

“사랑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윤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줬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지영 자매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대중교통을 타고, 치료기관을 찾아간다. 배우지도 않은 그림을 곧잘 그린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거라던 아이가 씩씩하고 명랑한 청년 작가가 됐다. 이지영 자매가 견뎌낸 그 숏한 세월이 엄마 오금옥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했다.

“지영이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삶을 통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배우지도 않은 그림을 곧잘 그려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아이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봄별은 이 가정에만 찾아온 게 아니었다. 김수 자매, 김재원 형제, 박혜신 자매, 최희민 형제에게도 찾아왔다. 그들은 ‘장애인 청년 작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 감동

을 선물하고 있다. 장애인 청년 작가 5인(김수, 김재원, 박혜신, 이지영, 최희민)이 사랑할갤러리(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1층)에서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을 열고 있다.

박혜신 자매는 지난해 연말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도 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 김명희 권사가 지난해 전시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꺼냈다. 박혜신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활짝 핀 자목련 그림을 구매했고, 그 그림을 품에 안고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저는 혜신이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미소를 대하는 듯합니다. 성도들이 갤러리 복도를 오가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재원 형제의 어머니 박정애 성도에게는 전시회보다 “행복하다”는 아들의 고백이 더 큰 선물이었다.

“재원이가 전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재원이의 그림을 보고 ‘위로 받았다’, ‘소중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등의 평을 남겨주시는 관객들과 만나면서 큰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할갤러리에 걸린 아이들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김수 자매의 어머니 김영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딸의 은사를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온누리교회 장애인 예배가 우리 모녀의 안식처입니다. 늘 위로와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특별전을 열고 작게나마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가 이 기회를 좋은 토양 삼아 더 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곁에 머무는 사랑, 페이스메이커

‘장애’라는 북극의 추위를 견디는 이들 곁에서 묵묵히 품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

인사역본부 교사들이다.

정길우 성도(서빙고 사랑부 교사)는 직장 신우회 활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애인 시설에서 무려 20여 년을 봉사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년퇴직 이후 공동체에서 장애 자녀를 둔 가정들을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이유를 어느 주일 발견한 ‘사랑부 교사 모집’ 광고에서 알 수 있었다. 무작정 사랑부 예배를 찾아갔고, 교사로 지원했다.

사랑부를 섬기면서 정길우 성도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사랑부 여름 캠프에서 한 형제의 배변을 돕고 샤워를 시키다가 문득 아무 거리낌 없이 섬기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왔다. 그때 동료 교사가 건넨 한마디가 그 기쁨의 정체를 알려줬다.

“‘사랑부가 아니면 이런 경험을 평생 못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할 수 있는 일이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서 돕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문석윤 성도(서빙고 예수사랑부 교사)에게 예수사랑부를 섬기던 어머니께 연락이 왔다. 심어를 구하고 있으니 함께 섬기자고 제안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인지 망설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사 43:1)을 붙들고 예수사랑부 교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8개월이 흘렀다.

“예수사랑부 청년들을 보면 순전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곳에 10년 이상 몸담고, ‘나의 남은 삶은 이곳’이라 고백하는 선배 교사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사랑부가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년째 부천 사랑부 총무로 섬기는 김도훈 집사(부천온누리교회)도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느새 가장 소중한 사역지가 됐다. 대학생이 된 딸도 함께 교사로 섬기고 있다. 찬양할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 뛰는 사랑부 청년들의 미소에서 예수님을 본다.

“마라톤에는 선수 곁에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사랑부에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어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사랑부 아이들에게 평생의 온기를 나눠줄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행 비행기에서 내려 북극에 섰던 이들이 그 땅에서 이글루를 짓고 있다. 북극의 모진 추위를 이겨낼 튼튼하고 따뜻한 이글루를 함께 지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문의: 02-3215-3263

OLF(온누리법조인모임) 칼럼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태형 집사
(OLF 총무(변호사),
연대로스쿨 겸임교수,
대한변협 초대 대변인,
NGO 더멋진세상 감사)

얼마 전 <온누리신문>에서 ‘1962년, 미국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다. 그 글에서 1962년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짧은 기도문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이 미

국 사회의 급속한 세속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얼마 전 한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교육 책자에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생식 기관 및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이 있다’, ‘성과 관련된 느낌과 생각은 성에 대한 지식, 자신의 가치와 신념, 욕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해 성이라고 한다. 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성의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교육이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벌써 10년도 훨씬 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7),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창 2:24)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들어갈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은 이제 이론을 넘어 점차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2024년 7월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성 배우자’에 준하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한 것으로 장차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어 주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차별금지, 성 다양성, 혐오, 증오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

또 2026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수많은 법이 홍수를 이루며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에도 이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난다. 이와 같은 법안들의 중심에는 항상 ‘차별금지’, ‘성 다양성’, ‘혐오’, ‘증오’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차별금지’라는 용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다. 차별을 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들이, 어떤 형태로 발의가 되고 있는지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이런 법들이 단순히 교회나 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 적용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물론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얼마 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은 2026년 처음 등장한 법이 아니다. 2007년부터 발의된 법안이며 20년째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점점 더 차별금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고 차별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발의되고 있는 법이다.

한편,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와 동시에 ‘차별금지’라는 이름을 달지 않은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을 각종 법률의 개정안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라는 형태로 국회에 발의되게 하고 있다(이런 입법 행태를 ‘조개기 차별금지법의 꿈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을 위반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및 혐오’의 개념을 무한정 확장한다. 종교계 방송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쿼터제를 반대하는 보도를 할 경우 이를 ‘성 다양성 존중’,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라는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본다. 보도 제한은 물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되어 보도는 위축되고, 종교 방송의 기능을 잃어 궁극적으로 방송국의 존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즐겨 보는 CGN도 종교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조차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해 동성 커플에게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괴롭힘’ 규정을 추가해 유사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버렸다. 그 밖에도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법이 발의되었고, 비혼 동거 가족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명칭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교회 해산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

이와 같은 차별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교회나 교단을 직접 겨냥한 치명적인 법안이 얼마 전 발의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해산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민법을 개정하는데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이라는 법적인 단체가 운영하는 교회다. 법적인 단체인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있고,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민법의 이 규정은 오랜 기간 별다른 개정 없이도 현장에서 규정이 잘 적용되어 오던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도 불법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민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이 시점에 굳이 민법을 개정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행정기관인 관할 감독관청이 의심을 하는 해당 교회의 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한 위헌적인 규정이 있다. 심지어 법을 위반하면 교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의 교회 재산을 전부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규정까지 들어가 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재산도 국가가 빼앗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인 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전부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규정은 과연 이 민법 개정안이 무엇을 겨누고 있는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 정치는 때려야 뗄 수가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이제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만큼 중요한 교육자인 교원에 대해서까지도 정치 행위를 허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에게는 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교분리’로 번역되는 영어 표현이 ‘정교분리’로 잘못 사용되면서, 마치 정치와 종교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에도 이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이제 자명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일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멈춰버린 ‘입양’의 시계

성도들의 기도가 그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오창화 집사
(온누리울타리 팀장,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입양 이야기’입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은 입양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입양은 한 아동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라고 표현하셨다. 맞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입양’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죄의 종노릇 하던 고아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법적인 지위’를 넘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고아의 아버지’ (시 68:5)라고 소개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상은 바로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외롭게 홀로 있는 아이들이다.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은 무너진다.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면 더없이 기쁜 것이 부모다.

우리가 하나님 아با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인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아를 돌보는 입양과 가정위탁은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돕는 사역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다.

차갑게 식어가는 이 땅의 입양 현장

대한민국에는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300만 성도의 가정이 있으며, 800만 성도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무려 100만 명의 고아들이 보육시설(고아원)에서 부모의 사랑 없이 외롭게 성장했다. 지금도 매년 2000명의 아동이 보육원에 입소하거나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고,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온누리교회에는 입양 가정과 위탁가정이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입양과 가정위탁을 홍보하는 사역팀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사회선교부 소속 입양위탁가정 모임 ‘제이홈’과 보육원 아동과 결연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하는 ‘온누리울타리’다. 제이홈과 온누리울타리에서 많은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 전체가 바뀌는 일이다. 멈춰버린 이 땅의 입양 시계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성도가 고아를 가슴으로 낳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공적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입양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가정을 만나는 길은 더 좁고 험난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양 시계는 멈춰서 있다. 국가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병목 현상과 인력 부족,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절차로 인해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와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서로 닿지 못한 채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입양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은 이를 ‘제도의 정착 과정’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한 아이가 가정을 만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안타까운 비극이다. 시설에서 보내는 하루는 아이의 정서와 발달에 평생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신 10:18a)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행정 편의주의와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외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제이홈 소속 입양위탁 가정 성도들과 예비입양 부모들이 함께 정부 앞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무원들은 입양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하니 기다리라고만 한다. 옳은 말 같지만, 정부

도 공무원도 아기가 입양부모와 쉽게 애착 관계를 만드는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전문적이며 진정성 없는 입양 업무로 인해 공적입양체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아기도 입양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손길’과 ‘아빠의 품’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시설이나 풍족한 후원 물품이 아니다. 밤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기도해 주는 엄마의 손길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빠의 품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국가도, 학교도 아닌 ‘가정’이었다. 아이는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지금 제도의 벽에 막혀 수많은 아이가 시설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부모를 기다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아이들의 외로운 울음소리에 하나님 아바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를 돌보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고아를 위한 네 가지 기도 제목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기도를 부탁한다. 태아생명보호법과 입양촉진법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전국입양가족연대를 대표하는 신분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입양된 한 명의 자녀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은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께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한다.

첫째,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입양 행정과 제도가 오직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위해 신속하고 따뜻하게 개편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가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정을 향해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둘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육신의 부모는 떠났을 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아바가 되어 주셔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아이들의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입양을 결단하고 기다리는 예비입양 부모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그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예비입양 부모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 온누리교회가 이 땅의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을 대신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제이홈’에서 더 많은 성도가 입양과 가정위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온누리울타리’에서 보육원 아동과 결연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보육원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걸을 지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아바이심을 선포하며 동행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 전체가 바뀌는 일이다. 멈춰버린 이 땅의 입양 시계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기다림에 지쳐 잠들지 않도록, 오늘 밤 그들을 위해,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가정들을 위해,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잠 21:14)

분노의 불을 끄는 참된 방법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잠 21:14).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성경이 뇌물을 권하는 것인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출 23:8)고 분명히 금하신 하나님(잠언)에서는 뇌물이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이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잠언>이라는 책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성서해석학에서는 <잠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처방적 잠언’(prescriptive proverb)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서술적 잠언’(descriptive proverb)이다. <잠언> 21장 14절은 후자에 해당한다. “뇌물을 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물과 뇌물이 실제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기술한 것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드러난다. 전반절은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한다고 말하고, 후반절은 ‘품 안의 뇌물’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한다. 히브리

시는 후반절에서 전반절의 의미를 반복하면서 한층 더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도 ‘노’보다 ‘맹렬한 분’이 훨씬 격렬한 분노를 가리키고, 그에 대응해 ‘선물’보다 더 강한 표현인 ‘뇌물’이 사용된다. 이는 분노의 강도가 극에 달할수록 그것을 가라앉히는 데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은밀한’과 ‘품 안의’라는 표현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건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드러내 놓고 주는 선물은 자칫 과시되기 쉽고,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나 체면의 상처가 될 수 있다. 반면, 남몰래 건네는 정성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인다.

성경에도 <잠언>과 꼭 들어맞는 사례가 있다. 아굽이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 넘게 쌓인

분노를 알기에 수백 마리의 가축을 앞세워 보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창 32:20).

아굽의 속마음을 보면 이것은 순수한 감사의 선물이라기보다 자기 잘못으로 빚어진 분노를 무마하려는 전략적 증여였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관찰한 <잠언>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다.”

아버가일 역시 남편 나발의 무례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트리기 위해 음식을 급히 준비해서 달려갔다(삼상 25장). 이 역시 순수한 호의라기보다는 절박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행동이었다.

두 사례 모두 순수한 선물과 정의를 왜곡하는 뇌물 경계 어딘가에 있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선물’이었다.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늘

뚜렷하지 않은 현실을 성경이 솔직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잠언> 21장 14절의 지혜이다. 이 말씀은 뇌물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누군가 내게 분노하고 있을 때 자존심을 세우며 맞서기보다 먼저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이다. 내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 드러내 놓고 체면을 세우는 화해가 아니라 은밀하게 마음을 전하는 겸손이 분노의 불을 끄는 참된 방법이다.

예수님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마 5:25a)고 말씀하셨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관찰한 <잠언>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CGN 콘텐츠와 함께 - ‘RE바이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



한기재 목사
(중앙성결교회)

성경은 실제 역사에서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성경 인물들을 처음부터 위대하고 완벽했던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비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변화시킨 ‘은혜의 족보’다. 제자들 역시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 약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장점은 활용되고, 단점은 보완되었다. 이 모습을 우리를 비추는 거울삼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살펴보면 좋겠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드레와 빌립이다.

안드레는 본래 어부였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이기도 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가 된다. 초대교회는 그를 ‘프로토클레토스’, 즉,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불렀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인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다. 예수님이 빌립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전한다.

여기서 ‘발견했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바쳐 그 발을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보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고백 “나는 발견했다”는 “메시아를 내가 찾았다”는 말과 같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빌립에게 공통점이 있다. 전도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며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훗날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중 전도자가 된다. 안드레는 한 사람씩, 가족부터 전도하는 ‘개인 전도자’였다. 은혜받고 확신을 얻은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했다. ‘파문형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 나가듯, 가족에서 친구로, 이웃에서 열방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말한다.

성경에 ‘오라’, ‘와서 보라’, ‘가라’는 표현이 나온다. 와서 예배하고, 가서 전도하라는 의미다. 예배와 전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가야 한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두 제자의 성향 차이가 드러난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빌립은 “이백 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계산한다. 그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반면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려온다. 그리고 질문한다. 예수님을 그 문제 안에 개입시킨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 우리의 문제에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게 기도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제자 모두 품으셨다. 장점은 살려주시고, 단점은 보완하게 하셨다.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 우리 역시 각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이다.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 더 자세한 내용은 CGN 유튜브, 팟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은혜의 이정표가 되기를

15년 동안 성실히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을 접하며 가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해 무너졌던 마음을 부여잡고 매일 새벽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a)라는 말씀으로 저를 깊이 위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직업의 전환을 넘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훈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임시’라는 큰 산 앞에 있는 첫째 아이가 성직에 매몰되기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며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육신이 급격히 쇠약해지신 부모님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제게 꼭 맞는 새로운 일터의 문이 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 대신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의 신앙과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물질의 결핍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먼저 채워서 이 고난이 훗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은혜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크리스천의 건강한 생활

햇빛과 외양간 송아지

한국인은 햇빛에 비교적 민감한 편이다. 중년 여성들뿐 아니라 군대 PX에서도 자외선 차단 크림이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과거 미국 LA의 한 골프장에서 한인 여성들이 출입 제한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유는 복장이었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모자, 선글라스,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팔토시, 장갑까지 착용한 모습이 복면강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햇빛에 피부를 노출하는 서양 골퍼들의 복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말 4:2).

태양의 광선이 우리를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하게 해서 펄쩍펄쩍 뛰게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많은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황달은 심할 경우 뇌 손상을 유발해 뇌성마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푸른 형광등 빛을 쬐이면 저절로 없어진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신생아를 햇빛에 많이 노출하라는 육아 지침이 전승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창가 쪽 신생아가 창안쪽 신생아보다 황달이 덜 생기는 이유를 연구하다가 햇빛이 황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것이 신생아 황달 광선 치료의 시작이었다.

온몸을 햇빛으로부터 가리고 걷거나 운전하는 여성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골다공증은 햇빛을 싫어하는 여성들에게 찾아온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비타민D라는 것은 초등학교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음식물로 섭취한 비타민D는 피부에 저장되었다가 햇빛의 자외선을 받아야 활성화된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 예방과 치

“하나님의 선물인 햇빛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햇빛을 차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료제 역할을 한다.

또한 햇빛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한 직장인들이 산책 전보다 근무에 더 열정적으로 변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 아마도 밤과 어둠이 죽음을 연상시키다 보니 무의식적으

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중에 나온 수많은 수면제를 보면 불면증은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졸음을 유발해 잠이 들게 한다. 낮에 햇빛을 쬐면 저녁 시간이 지날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집중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오후 9시 TV 뉴스가 시작될 때 졸기 시작하다가, 끝나는 10시쯤에는 코를 골게 된다.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

부암은 한국인보다 서양인에게 훨씬 많다. 우리는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어두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고, 유전적으로도 피부암 발병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생활 습관상 서양인에 비해 햇빛 노출량이 적은 한국인이 피부암이 두려워 햇빛을 지나치게 피하는 것은 과도한 염려일 수 있다.

화장품 회사는 매출을 위해 기초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쓰도록 유도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굴의 주근깨와 골다공증 중 어

느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의 문제다. 양산과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하는 햇빛을 선택할 것인가?

빛은 하나님이 창조 첫날 만드신 창조물이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며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 8:12)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둠에 처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빛의 자녀가 되면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선물인 햇빛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햇빛을 차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육신의 건강을 수면제나 골다공증약, 자외선 차단 크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한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멘토가 멘티에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년 전쯤, 지금은 청년이 되어버린 아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아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몇몇 어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온 모양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단다. 겉으로 드러나는 술과 담배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악한 마음이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단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분명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날이 온다면 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과 멀어지게 될 거란다.”

그렇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녀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 자녀이다. 그럼에도 크리스천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고민과 씨름, 외로움과 방황을 토로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게 된다.

나 역시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즐거움으로 고민과 스트레스를 풀어보려 했던 때가 있었다. 특히 청년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유희에 깊이 젖어 있던 순간들도 있었다.

“앞뒤 좌우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 보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용기 내 보자. 하나님이 이미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 계기가

예수전도단(DTS)이었다. 거창한 비전이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내 삶을 다시 정립하고 바르게 세우고 싶었기에 그 시작을 신앙, 곧 하나님께 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는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청년부 멘토 역할도 맡고 있는데 이 역시 내 안에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자연스레 다음세대와 청

년들에게 흘러가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히 11:6).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계산하지 않았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이 제시한 부귀영화를 따지지 않았다.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에스더 왕비는 민족을 위해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나아갔다. 인생의 말년에 이른 모세는 어땠을까? 말 주변 없던 그가 세계 최강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출애굽을 담대하게 요구했다. 누구보다 소심했던 기드온은 단 300명의 병력으로 전쟁에 나갔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청년들이여! 삶의 무게와 현실 앞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타협하려는 마음 때문에 괴롭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앞뒤 좌우

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 보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용기 내 보자. 하나님이 이미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김형구 멘토
(남양주 다윗공동체)

문화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기독교 유적 순례’

초가 진료소에서 시작된 기적, ‘전주 예수병원’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전주의 의료선교는 해리슨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리슨은 미국에 있을 때 전문 의사는 아니었지만, 의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벼운 환자는 진료할 수 있었다. 그는 전주성 서문 밖에 약방을 마련하고, 중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인심을 얻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해리슨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정식 의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마티 잉골드가 파송되어 1898년 11월 3일 전주 성문 밖 은송리 작은 초가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이것이 ‘전주 예수병원’의 시작이었다.

잉골드는 1897년 9월, 제물포에 도착했다. 얼마 뒤 전라북도 전주에 들어와 어학공부에 매달렸다. 그리고 1898년 전주 성문 밖 은송리에 허름한 초가 한 채를 구입하고, 11월 3일 첫 진료를 보았다. 첫날에는 6명의 환자를 보았고, 첫 한 달 동안 100여 명을 진료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기초 위생과 청결만 유지해도 나올 수 있는 병이 많았다. 간단한 치료에도 즉시 효과를 보는 일이 많았다. 덕분에 용한 의사로 소문이 났다.

복술인이었던 복만이라는 여자는 잉골드에게 감동하고 전도부인이 되었다. 발목에 심한 독종이 생겨 고생하던 유경선은 한 달 이상 정성 어린 치료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잉골드는 약을 거의 무료로 주었지만, 그냥 주는 것은 주저했다. 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자를 난처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값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가져가게 했다. 1,586명의 외래환자와 21명의 입원환자에게 받은 수입은 약 29.4달러였다.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약 1,155달러 정도다. 한화 약 160만 원 정도의 적은 수입이다. 잉골드의 헌신적인 진료와 치료는 이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서양인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05년 잉골드는 루이스 테이트 목사와 혼인했다. 혼인한 뒤 잉골드는 진료소를 사임하고 테이트 목사의 사역을 도왔다. 잉골드는 진료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사역에 집중했다.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녀들이 전도부인이 되도록 일시켜 주었다. 이 부부는 1925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건강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전주 예수병원은 1904년부터 마티 잉골드 후임으로 윌리엄 포사이드(한국명 보위럼) 선교사가 맡았다. 그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갔다. 1905년 완주 봉동읍에 사는 부자가 강도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60리를 달려갔다. 응급처치 덕분에 부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치료가 끝났지만 날이 저물어 그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도둑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도둑들은 포사이드를 일제 경찰이라고 오인하고 공격했다. 그 과정에서 포사이드는 귀가 찢리는 중상을 입었다. 전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동료 의사 둘이 달려왔다. 그리고 반신반의했던 양반 출신 부자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병원을 ‘야소병원’이라 불렀다. 정식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얼마 안 가 정식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1912년 예수병원은 서양식 아름다운 건물을 신축하고 진료를 보았다.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소문이 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35년 화재로 전소되어서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화재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던, 또는 진료받았던 이들이 현금하거나 지원해서 재건할 수 있었다. 전주 사람들에게 예수병원이 얼마나 듬직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40년이 되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교회를 비롯해 기독교계 학교, 기독교계 병원에도 요구했다.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자 일제는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그래서 예수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다. 해방 후인 1947년 다시 개원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닫아야 했다. 1947년부터 22년 동안 예수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폴 크레인(한국명 구바울) 선교사는 암 치료와 기생충 근절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1919년 미국에서 태어나 아버지 크레인 목사가 있는 순천에서 자랐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7년 예수병원으로 왔다. 그는 한국 최초로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도입했고, 1950년 간호학교를 설립해 간호사를 양성했다.

1963년 말 복통을 호소하는 소녀를 진단한 결과 장폐색증임을 확인하고 급히 수술에 들어갔다. 소녀를 괴롭히고 있던 것은 회충이었다. 폴 크레인은 소녀의 몸에서 꺼낸 회충을 세웠다. 그 결과 무려 1,063마리가 나왔

다. 폴 크레인은 한국인의 위생 상태에 분노를 넘어 절망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리고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전 세계에서 한국 기생충 박멸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기생충 박멸에 뛰어들어 30여 년 만에 사실상 퇴치에 성공했다. 196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암등록사업을 시행해서 암환자 치료를 위한 체계를 세웠다. 1979년 방글라데시에 의료선교사를 파송해서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예수병원 맞은편에는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이 있다. 전주에서 펼쳐졌던 선교행전의 역사가 친절한 설명과 사진 자료로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뒤편은 산으로 이어지는데, ‘다가산’이라 한다. 전주선교부가 은송리에서 옮겨온 곳이 ‘화산’인데, 화산의 한 줄기가 다가산이다. 다가산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사택이 숲속에 드문드문 보이는데 현재 3채만 남았다.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지어진 건물은 안타깝게도 쓰레기 재활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듯하다. 조요셉 선교사가 머물던 집은 예수병원 직원 어린이집으로 쓰이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설대위 선교사 사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요셉 선교사 사택 뒤로 올라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다. 전주 선교부와 예수병원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가 잠들어 있다(계속).

*** 이 글은 책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전라, 경상, 제주편>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신간

영적 보물의 가치를 일깨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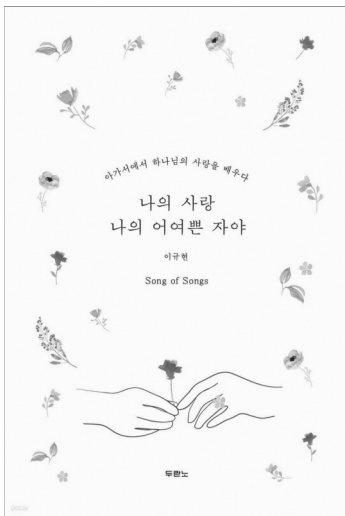


<영혼을 빛나게 하는 여덟 단어>
최병락 | 두란노 | 13,000원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 활동에는 성실히 참여하지만 정작 ‘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말씀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와 같은 실질적인 물음에는 답하지 못한다. 그만큼 영적 긴장감, 집중력, 민감성이 둔화되고, 학습된 지식, 이전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빛나게 하는 여덟 단어>는 기독교의 정수를 담은 8가지 보물들을 통해 다시금 깨어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준다. 책의 저자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는 ‘구원, 말씀, 찬양, 기도, 믿음, 소망, 고난, 십자가’라는 믿음을 통해 얻은 풍성한 영적 보물들을 하나씩 일깨우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혜자임을 강조한다. 익숙함에 머문 믿음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은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잃어버린 친밀함을 회복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규현 | 두란노 | 18,000원

어디에서나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신앙마저 익숙한 틀에 갇혀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가서>를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 갈망에서 시작해 위기를 지나 마침내 죽음조차 이기는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려 낸다. 그리고 이 사랑의 흐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그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하나님과 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온누리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6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를 오는 4월 24일(금)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2026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에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 가스펠보컬밴드 크룩스, 래퍼 휘타 등이 출연한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용자와 서울 프로비던스 학생들의 연합 합창도 준비돼 있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사회는 가수 이무송 집사가 본다.

한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장애인주일을 맞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용산 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4월 19일(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시설 소개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포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와 시설 이용자 모집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난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에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 온사랑합창단, 사랑챔버,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 소속 장애인과 가족, 아직 소속이 없는 일반 성도 가정의 장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02-3215-3417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

스포츠전도팀 특별 강의, 27일 서빙고 두란노홀

스포츠전도팀 특별 강의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4월 27일(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이자 국가대표선수준교회를 섬기는 황승택 목사가 강의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를 나누고, 스포츠 선교의 비전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010-8080-6967)로 하면 된다. 운동선수와 지도자, 체육계 종사자 및 스포츠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참가자 모집

4월 21일~5월 26일 매주 화 오후 7시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5월 5일은 휴강).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에서는 ‘진리의 길, 시대의 도전’을 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제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서양 철학

과 문화의 역사적 흐름으로 살펴본다. 이종우 장로, 서명수 장로, 신동일 집사 등이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4월 21일(화)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5080-1067

/ 남현영 기자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봄 예배’

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봄 예배’를 4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온누리 법조인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법조인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

성과 사회적 소명을 이루는 신앙공동체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무원, 법학 교수 등 직업에 상관없이 법조인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및 예배 참석 등에 대한 문의는 총무 최태형 변호사(010-3281-0735)에게 하면 된다.

45기 드림어게인 참가자 모집

5월 23일~6월 20일 서빙고 한동홀

45기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으로 인해 겪는 아픔과 불안 등에서 벗어나고, 혼자서 삶과 미래에 대해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혼한 남녀, 별거 중인 남녀, 소송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5월 23일(토)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자녀돌봄 4만 원).

1주 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주 차 ‘가족의 이해와 관계도’, 3주 차 ‘자아상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마지막 차에는 재혼 간증이 있다.

문의: 010-3489-2080

/ 남현영 기자

‘부활의 평강 · 은혜의 단비’

김준영 작가 개인전 5월 10일까지

김준영 작가 개인전 ‘부활의 평강 · 은혜의 단비’가 5월 10일(일)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열린다. ‘은혜의 단비-부활의 노래’, ‘은혜의 단비-부활의 평강’ 등을 전시

한다. 김준영 작가는 개인전 29회, 단체전 400여 회를 개최한 작가다. 현재 대한민국크리스천아트피스트(KCA F) 운영위원장, 한국미술인선교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10-3128-2332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4월 화요성령집회 ‘영적 코어’

4월 화요성령집회가 ‘영적 코어’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4월 21일 최대홍 목사 ‘신뢰, 약속의 언덕’ (롬 4:13-25), 28일 최성민 목사 ‘소망, 영혼의 닻’ (히 6:13-2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4월 7일에는 이서진 목사 ‘경외, 생명의 샘’ (시 34:1-14), 14일에는 최성민 목사 ‘갈망, 파수꾼의 눈’ (막 13:32-37)을 주제로 설교했다.

4월 27일까지 ‘계절의 향기’

곽선양 작가 개인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북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곽선양 작가 개인전 ‘계절의 향기’가 4월 27일(월)까지 갤러리 170 7(강남구 신사동 583-3 제이비미소 빌딩 4층 405호)에서 열린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목요일과 일요일 휴관). 곽선양 작가가 느끼는 세상의 내음을 화폭에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2-985-3609

데이빗 스쿨(입대자 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4월 25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군 생활 방법을 배우는 ‘데이빗 스쿨(입대자 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육군사관학교(육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 원(참가자 전

원 식사 및 선물 제공). 참가신청은 QR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군선교팀장(010-3225-3820), 총무(010-4716-2849)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창조과학 봄 탐사 참가자 모집

5월 16~17일 강원도 태백, 삼척 등지

창조과학선교팀에서 ‘창조과학탐사스쿨 봄 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6일(토)부터 5월 17일(일)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지에서 진행된다. 구문소, 통리협곡, 대금굴, 동해단구해변 등을 탐사한다.

창조과학탐사는 노아의 홍수 등 성경적 대격변의 현장을 탐사하면

서 〈창세기〉의 사실성을 현장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현장 탐험으로 창조 세계를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5월 13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문의: 010-3334-2388

/ 남현영 기자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양재 드림홀

강남A 김우현 지혜영	추현탁	윤은수 홍우정	고은영 이종 이종서	서초B 김원식 안은숙 전원 황동하	양재A 김미숙 김설혜 문정인 심희수 윤상길 윤은례 이유진 이태현	이현숙 정주원	김평화
강남B 김민재 류정은 변민광 차소연	강남C 이혜경	경기A 김예은 이지희 정락석	분당A 김태연	서초C 김성욱 오서영	양재B 김대현 김하숙(A) 이순원	하나 정송란	
	강남E 문하나 박남숙 유정근	도곡	이혜숙		온소망		

양육반자 수료자

서빙고	김성신 김윤미	김진만 김철준	박지영 배정환	오소린 유완석	이범희 이복희	조민정 조수현	최광희 허수진
전병천 목사반	김재민 김정연	김현수 남궁욱	안명숙 양경미	유현정 윤영운	이성구 이정혜	조영미 조인희	
강민지 김상우	김정하 김준도	노혜진 마유미	엄민지 여운희	윤지현 이명희	이혜림 임설희	지선미 진영재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5월 18~24일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가 5월 18일(월)부터 24일(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를 주제로 온누리교회의 선교 철학과 실제 사역 사례를 공유한다. 비서구권 7개국 교회지도자 250여 명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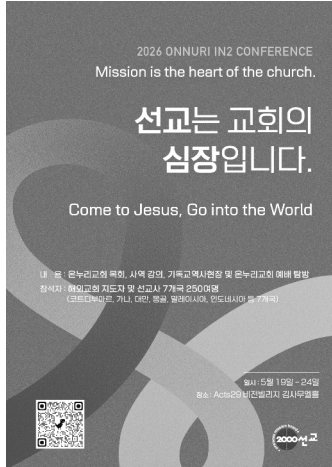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에서는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 사역 구조, 각 사역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콘퍼런스 참가 국가와의 선교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의를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역자 20여 명이 한다.

온누리 IN2 콘퍼런스는 2008년 ‘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출발했다. 한 국가의 교회지도자들이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사역 나눔을 요청하면서 2011년부터 콘퍼런스로 발전했다.

‘비타민C’라는 이름으로 14년 동안 이어져 왔다. 참가 국가가 14개로 확대됐고, 누적 참가 교회지도자만 2천 명이 넘는다. 2025년부터 ‘온누리 IN2 콘퍼런스’로 명칭을 바꿨다.

온누리 IN2 콘퍼런스의 핵심 방향은 단순한 교회 성장을 넘어 선교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다. 특히 비서구 교회와 협력, 연대 강화, 선교 전



락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의: 010-3786-6298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의 일꾼’

5월 23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ANM: All Nations Worship&Praise Ministries, 이하 경배와찬양) 큰잔치가 5월 23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주제는 ‘복음의 일꾼’(골 1:23)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및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생중계한다. 하스데반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경배와찬양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026 여름 경배와찬양

학교 및 7000학교’도 운영한다. 7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미래세대들을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7월 30일(목)부터 8월 1일(토)까지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청지기들을 위한 경배와찬양학교’가 용인명지대학교에서 이어진다. 경배와찬양학교 여름 행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엡 3:8)를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2-796-9700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3 참가자 모집

5월 7일부터 매주 목 오전 9시 30분 온라인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신학과 영성에 관한 영어 서적을 인도자가 읽으며 번역하고, 함께 신앙적 통찰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5월 7일(목)까지 QR 코드 또는 전화(010-4047-0717)로 하면 된다. 회비는 월 7만 원(매월 4회 기준, 첫 주 선납).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3에서는 스캇 펙(M. Scott Peck) 박사의 저서 《The Road Less Traveled(아직도 가야 할 길)》을 영어 원서로 읽는다. 이정숙 교수(더맵글로벌 대표, 전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교회사 교수)가 인도한다. 문의: 010-4047-0717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에 23번째 우물 완공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4월 4일(토) 남수단 하이 타라와 지역 코르라물라에서 ‘우물 완공 기념 축하 예배’를 드렸다.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에서 건축한 23번째 우물이다.

남수단 하이 타라와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식수원 접근이 극히 어려웠다. 주민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장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수인성 질환 노출 위험도 높았다. 여성과 아이들의 가사 노동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우물 완공으로 주민 약 500명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공동체가 우물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ON편지〉재능기부자 모집

문서편집 및 디자인 부문

이전선교본부에서 〈ON편지〉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문서편집과 디자인 부문이다. 문서편집 분야는 선교사들이 보낸 서신을 정해진 분량에 맞게 요약 및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디자인 분야는 인디자인(InDesign) 템플릿을 활용해서 정보지 편집 작업을 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로, 문서편집 부문은 기본적인 컴퓨터 및 워드 프로그램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디자인 부문은 인디자인

사용이 가능한 편집 디자이너가 대상이다. 문의 및 신청은 이메일(jjh32116@gmail.com)로 하면 된다.

〈ON편지〉는 이전선교본부에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등을 엮은 기도정보지다. 격월로 발행되고, 선교 후원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전달된다.

구독 신청 문의: 02-3215-3212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교육선교팀, 4월 11일 워크숍 개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수업계획 재구성 이론 및 실습

교육선교팀이 교육선교스쿨을 수료한 현직 기독교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수업계획 재구성 이론 및 실습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1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장보길 집사 찬양, 남명현 장로 기도, 김정효 교수 강의, 참가자 실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정효 교수(이화여대명예교수)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해와 이론 모형’, ‘기독교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교육에는 자연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등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 실습 시간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수업계획서 키트를 참고해 수업계획 재구성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예린 자매는 “교사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가 다음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롭게 깨달았다”며 “2학기 수업으로 예정된 생태계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관점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선교팀은 매월 ‘교육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현직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010-3135-0509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제이홈 ‘가족 캠프’, 입양위탁가정 4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족 모임 ‘제이홈’이 지난 4월 11~12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가족 캠프를 열었다. 제이홈 소속 입양위탁가정 4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홈 가족 캠프에서는 예배 및 기도회, 하용조 목사 기념관 투어, 레크리에이션, 가족 사진 촬영, 가족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종이집을 만들고, 입양위탁가정의 정체성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GO 메디엑세스 봉사자 모집

NGO 메디엑세스 미디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사진 촬영 및 보정,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반이다. 선발된 봉사자는 올해 메디엑세스 주요 행사와 국내 의료사역 현장을 동행하며 콘텐츠 제작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전화(02-570-7110) 또는 이메일(mediaccess@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NGO 메디엑세스가 5월 9일(토)과 10일(일) 경남 통영시 수우도에서 ‘특별진료사역’을 한다.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한방 등 진료 및 약 처방을 한다. 이 미용 봉사와 노방전도도 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3, 4주 차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24일(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010-4427-5025)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40만 원(자녀 동반 시 1인당 7만 원 추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에 예배하신 행복에 이르는 부부와 가정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7-86505(온누리교회 양재하가운)

/ 박지혜 기자

강동 행복이음 축제 참가자 간증



/ 이현진 성도(강동온누리교회)

그날의 감동과 은혜

올해로 세 번째 열린 강동 행복이음 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선포됐다. 부활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 나가는 경험이었다. 그날은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축제 전날과 다음 날에는 비가 내렸는데, 축제 날만은 하늘이 맑게 열려 있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서 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씨가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축제 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수백 장의 전도지를 만드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 손을 보았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고, 든든했다.

나는 '부활의 향기, 평강 캘리그라피' 부스에서 문장과 향을 나누며 섬겼다. 처음 맡은 부스와 부담이 컸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골 4:13)라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만난 두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한 명은 어린이였다. 그 어린이는 수줍은 얼굴로 다가와 여러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니 성경 말씀이 적힌 캘리그라피를 골랐다. 눈길을 끄는 문장들이 많았음에도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거로 생각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내 마음 깊이 남았다.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내게 질문했던 주님이다. 그 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고 계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라서 감사함으로 나누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분명히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 이틀만 아니라 부스에서 만났던 얼굴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마음에 남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은혜였다. 그 자리에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날의 감동과 은혜가 일상으로도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의료 NGO 메디엑세스 봉사자 간증



/ 전상준 집사(서초A공동체)

예수님 따라
이 길을 나선다!

"상준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2024년 7월 어느 일요일 저녁, 형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이틀 뒤 인도네시아 숨바섬으로 의료 NGO 메디엑세스 BEE팀 아웃리치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곧장 팀장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아웃리치에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의식도 저하된 상태였다. 그날 밤 임종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하필 왜 이때냐고. 그런데 이내 의심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아웃리치를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이 아닐까? 그 의심은 무모해 보이지만 확신으로 변했다. 내가 아웃리치를 가야만 어머니가 사실 거라는 확신으로, 결국 나는 아웃리치를 떠났고, BEE팀의 간구로 어머니는 열년(閏年)을 더 사시다가 소천하셨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서 나는 두 번 예수님을 만났다. 한 번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온 다섯 살 소녀의 모습으로였다. 귀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중이염 환자였다. 치료 기구가 무서워 떨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며 흐느끼는 그 소녀의 눈망울에서 나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다. 밥벌이 수단에 불과하던 의사라는

직업이 그 순간 처음으로 소명으로 다가왔다.

또 한 번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썩은 눈빛의 40대 여인의 모습으로였다. 화산 지형의 날카로운 돌에 베여서 감염된 발을 치료는 커녕 부상한 채로 노동해야 하는 여인을 소독하며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

마지막 날, BEE팀 식구들이 지친 몸으로 숙소로 향하는 좁은 차에서 불편한 자리를 서로 양보했다고 자원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함께 찬송도 불렀다. 웅덩이에 차가 덜컹거리려도 우리는 까르르 웃었다. 7살부터 60대까지, 미국에서 온 약학 교수님, 중국에서 달려온 목사님 부부, 파주의 간호사 자매, 수원의 소아과 의사까지. 오직 사명으로 모인 이들이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도와야 할지 통하는 영적 공동체였다.

올해도 의료 NGO 메디엑세스 BEE팀이 인도네시아로 의료선교를 떠난다. 이번에는 아내와 딸, 지인의 딸과 함께 참여한다. 왜 가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그곳으로 나를, 우리를 부르시는 이끌림이 있다. 예수님이 길 위의 인생이셨듯, 그 길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냥 이 길을 나선다.

엘라이프 참가자 간증



/ 김대현 집사(Point5공동체)

내 기쁨이 시작되었다!

아내와 함께 '엘라이프' 과정을 신청했다. 정확한 커리큘럼을 알지 못한 채, 회복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것만 인지하고 신청했다.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는 과정인지는 엘라이프가 시작되기 직전야야 알았다.

나는 2024년 12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투병해 왔다. 중환자실도 다녀오고, 조혈모세포이식도 받았으며, 항암 중에 뇌 일부가 손상되어 한동안 눈이 보이지 않기도 했다. 투병하는 긴 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다. 이제 시력은 많이 회복했지만, 균형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낙상 위험으로 재활 운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게 부담돼 걱정했지만, 아내와 함께 조금씩 움직여보기로 결단했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여보기로 결심했다. 손가락 운동조차 따라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 있던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감사기도'를 매일 쓰는 일이 습관이 됐다.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한참을 생각해야 했

던 내게 이제는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한강을 걸으며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를 느끼면서 감사가 넘쳐흘렀다.

엘라이프 강의를 들으며 '뇌가소성'에 대해 알게 됐다. 그리고 "나의 뇌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시력과 균형감각, 약해진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겼다.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내가 엘라이프에 참여하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팀장님과 조장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조원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 감사했다. 엘라이프의 모든 강의와 순서, 함께한 사람들도 모든 것이 내게 맞춤형이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시작점에 서 있다. 엘라이프로 그 시작을 열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내 기쁨이 시작되었다. 엘라이프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참가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더 건강해져서 스테프로 걷길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한다.

139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황소영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정말 특별한 선물,
희망의 새 길!

어느 날, '두란노어머니학교'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라고 불러주는 세 자녀가 있음에도 스스로 엄마답지 못하다고 느끼던 나는 두란노어머니학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수없이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던 터라, 그곳에 가면 더 큰 책망을 받고 결국 주저앉아 일어날 힘조차 잃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염려와 달리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책망과 회한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애쓰며 살아온 나를 토닥여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엄마이기 전에 어린 딸이었던 나의 모습과도 마주했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아픔과 사랑을 쏟아낼 수도 있었다. 또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보물 창고 하나하나 발견하고, 자녀에게 다가갈 엄마인 나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묻고 들으며 나는 점점 '어머니'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마음 깊은 곳의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다른 엄마들처럼 직업도, 뛰어난 학벌도, 재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엄마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무너져가던 나의 영혼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막다른 길에 앉아 있던 나에게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실낱같은 희망의 새 길을 열어주었다. 비록 그 길이 아직은 좁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한 걸음씩 내딛을 것이다. 그 길은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 믿는다.

5시간이 마치 5분처럼 느껴졌던 몰입과 회복의 시간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다. 이 귀한 사역이 더 많은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가정의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다 나누지 못한 은혜와 감동은 나의 일상에서 번지는 작은 미소와 변화된 삶으로 대신 전하며 살고자 한다. 앞으로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장로칼럼

AI 시대, 변하지 않는 가치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AI 시대에 상응하는 또 다른 성공 조건을 찾아가곤 한다. AI 시대에 성공을 위해서는 독서쯤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 기술(IT)의 흐름을 만든 거물들은 하나같이 독서광이다. 그들의 서재에는 책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AI 시대에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우선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AI 시대에 왜 독서에 몰입할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도 끊임없이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기술적, 금전적, 철학적인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 갈 수 있어서다. 독서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향상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혼자 있을 때도 유튜브 쇼츠를 계속 넘기거나 여러 채팅방을 오가며 시간을 채운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른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한다. 전철을 타 보면 젊은이부터 백발노인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연신 손가락을 위아래로 그어댄다. 어떤 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동영상상을 보며 웃다

가 내릴 정거장을 지나쳐 버리기까지 한다. 전자기기로 단순 정보만 취하다 보면 뇌의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사고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다 보니 남의 글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어서 자신의 의사로 착각하게 된다. 이후에는 흥분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볍게 처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것으로, 인간 활동의 근본이다. 스마트폰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 혼자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아날로그적인 능력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때 독서는 아날로그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독서로 얻게 되는 분석력과 해석력, 비판적 사고는 인간의 아날로그적 능력의 자산일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독서는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여 공감 능력을 높여준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공감 능력만큼이나 크게 자란다.

독서의 유익은 시대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의 책 읽기 목적과 디지털 시대 독서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독서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독서는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성도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독서를 즐겨 하며,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한다.

권사칼럼

늘 설레는 전도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평생 현역으로 춤추며 사는 꿈을 가진 자다!” 나는 60대 중반부터 늘 이렇게 상상하고 말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사실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 가슴이 설레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다. 평생 현역으로 춤추며 살려면 복음의 능력, 곧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활력이 있다. 우리의 거듭남도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예배 때는 성령 충만한데, 막상 직장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아 전도는 입도 뻥긋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청년에게 나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존재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율법도 직접 받은 사람이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지도자이기도 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두려워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수 1:8-9).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청년에게 매일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라고 권면했다. 말씀을

가까이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고, 상대방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말씀이 내게 꿈틀거릴 때 가슴 뛰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청년은 한번 시도해 보겠다며 얼굴이 환해졌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역하는 한 청년이 외국인 피의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 피의자들에게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헤아리며,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세요”라고 짧게 전해보라고 권했다. 그 청년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피의자에게 그 말을 전했다. 청년은 그 피의자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기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내게 소식을 전해왔다.

요즘은 양재천변에 전도를 나가고 있다. 얼마 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다. 초콜릿을 건네며 말을 걸었더니, 대만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러 왔다고 했다. 엔지니어인 그녀는 한국어를 잘했다. K-컬처가 실감 났다.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 행복하다는 그녀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겠다”며 함께한 권사님이 전도지로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성경 말씀도 곧잘 읽었다. 대만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온누리신문>과 수세미도 건네며 대만에서 교회에 나가고, CGN도 시청할 것을 권했다.

전도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사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 전도는 늘 설렌다.

신앙에세이



신원석 목사
(NGO 더뎃진세상)

모든 제자가 두려움으로 떠나고 난폭한 군병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만 남아 있던 십자가 아래, 그 마지막을 지켜 준 두 사람이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다. 그들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고(요 19:38),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막 15:43, 눅 23:51).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사형 판결을 받게 할 때에도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눅 23:50-51).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후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세마포로 써서 자기 소유의 돌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막았다.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선생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었던 인물이며 그 역시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백 근쯤 가져와,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까이 따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 이후 정성껏 장사를 치렀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종교와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존경받던 이들조차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장사를 지내는 것뿐이다. 세상의 끝은 죽음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끝이 바로 그곳이라 선포한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과 역사도 십자가에서 끝난다. 세상을 십자가로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의 끝은 십자가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알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물과 성령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남은 죽음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지난 2천 년 동안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온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 왔다. 그래서 지난 2천 년은 세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누룩처럼 부풀어 갈 것이다.

지금 세상을 닮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끝을 맺게 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십자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벗겨지는 자리다. 가족, 학벌, 동료, 쌓아 온 부와 명예, 심지어 마지막 존엄이라 여겼던 자존심까지 모두 벗겨진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조각 천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다. 감추고 싶었던 수치가 드러나고, 죽어야만 끝나는 자리. 나의 십자가란 그런 자리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통곡한다. 그러나 결국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선다. 아니 그곳에 오른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군다. 살을 꿰고 들어오는 창끝의 고통보다, 절망으로 타는 영혼의 목마름보다,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눈물의 고통과 심장의 통곡을 듣게 된다. 죽음을 넘는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고백한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춘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근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4:0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2층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CGN 나침반Q

혼란스러운 세상 속, 당신의 영적 좌표는 어디에 있나요?
신앙의 현주소를 묻고(Question), 나아가야 할 방향(Compass)를 찾는
CGN의 성경적 세계관 오프라인 특강 <나침반Q>

<5월의 나침반Q> 바울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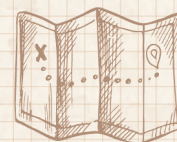


강사

최종상 선교사

신학박사(로마서, 바울 전공)
CGN 다큐 <바울로부터> 원작 스크립트 저자, 메인 스피커
前 돌로스선교선 단장

저서 : 『로마서: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행전과 역사적 바울 연구』
『Paul: Missionary and Theologian』
『바울로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시리즈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영종 온누리교회

특강 1 16:00 - 17:00 사도 바울 개관

특강 2 17:00 - 18:00 바울서신 이해를 위한 큰그림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온누리교회

특강 1 14:00 - 15:00 바울서신의 이해를 위한 큰 그림

특강 2 15:00 - 16:00 바울서신의 주요 사건과 연대기 재구성

참가비 | 2만원

문의 | 02-3275-9303

*5월에 <나침반Q - 바울로부터> 특강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문의 바랍니다.



신청 QR